

이정진·이유애린 열애... '新 기럭지 커플' 탄생

(나인뮤지스 출신)

각각 185cm·174cm의 모델 출신
골프 인연으로 작년 6월부터 교제

**본지
단독**

연예계에 새로운 배우·가수 커플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배우 이정진(40)과 나인뮤지스 출신의 가수 이유애린(이혜민·30)이다. 두 사람은 작년 6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연인으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이정진과 이유애린은 지인들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던 중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의 교제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차츰 확인하며 가까워지다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다.

이정진과 이유애린은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공통분모로 공감대를 느끼는가 하면 여는 연인처럼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소박한 데이트를 즐기며 7개월째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중에도 틈나는 대로 서로를 격려하며 상대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정진과 이유애린은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모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연



이정진(왼쪽)과 이유애린.

기자로 데뷔하기 전 패션모델로 활동했던 이정진은 185cm, 슈퍼모델 출신의 이유애린은 174cm의 큰 키를 자랑한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철저한 체형관리로 현역 모델과 다름없는 몸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비주얼이

완벽한 커플인 셈이다. 스포츠 마니아란 사실도 둘의 공통점이다. 이유애린은 수영, 골프, 승마, 피겨스케이팅 등 다양한 운동을 섭렵했고, 이정진은 싱글 수준의 골프 실력을 자랑한다.

1998년 SBS 시트콤 '순풍산부인과'로 데뷔한 이정진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한 연기자로 평가받는다. MBC '9회말 2아웃', tvN '더K2' 등 인기드라마와 '말죽거리 잔혹사' '마파도' '은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했다. 현재 MBC에브리원 '시골경찰' 시즌2에 출연하고 있으며 새해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정진은 꾸준히 네팔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을 돕는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전시회를 여는 등 만능재주꾼이다.

동덕여대 모델과를 나온 이유애린은 2007년부터 패션모델로 서울컬렉션 등의 런웨이를 누비다 2010년 걸그룹 나인뮤지스 멤버로 데뷔했다. 팔도신 뎀과 뛰어난 외모의 이유애린은 나인뮤지스에서 래퍼로 활약하다 지난해 6월 전 소속사와의 계약만료로 팀을 떠나 현재 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나인뮤지스에서 함께 활동하던 문현아와 컬래버레이션 싱글 '동동'을 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숫자뉴스



연기자 신지수가 임신 13주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네살 연상의 음악 프로듀서 이하이와 결혼한 신지수는 새해 2세 임신 소식을 팬들에 전했다. 2000년 SBS '덕이'로 데뷔한 신지수는 2006년 KBS 2TV '소난민 칠공주'로 사랑받았고 영화 '레드카펫', '프랑스 영화처럼' 등에 출연했다.

#해시태그 킷



"추위 비켜!" 뽀뽀 뽀뽀 이종석

야외 촬영 중으로 보이는 이종석이 손 난로와 담요 등에 뽀뽀 뽀뽀했다. 그의 스타프들이 이종석의 추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듯 추위를 감았다. 얼굴까지 '뽀뽀' 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춥지 않다"고 외친다. 이를 본 '절친' 연기자 윤균상이 "진짜 하나도 안 추워보인다. 뽀뽀"라는 글을 남겼다. 이정은 기자

#스포츠동아 #이종석 #뽀뽀 #추위 #뽀뽀 #주문외우기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연애 잡학사전)



영화 '1987'을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숨은 메시지 담겼다 대통령의 영화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 다음 날인 8일 영화 '1987'은 개봉하고 처음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라는 사실이 만들어낸 화제가 적지 않게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심지어 아직 누적관객 440만 명에 불과한 영화를 두고 "1000만을 넘기겠다는 확실한 예감이 든다"는 말까지 덧붙여 호기심을 자극했다.

대통령들의 영화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 숨은 메시지가 있기 마련.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송강호가 주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재의 영화 '택시운전사'를 봤다. 이번 '1987' 또한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시작된 6월 항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이야기다. 지금 '우리'를 있게 한 민주화운동을 담아낸 영화들에 특히 시선을 두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선택한 영화에서는 그들의 '지향'이 엿보이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로 어려운 고비를 극복한 역사 기반의 영화들을 택했다. 이순신 장군의 극적인 활약을 담은 '명량'부터 '국제시장'과 '인천상륙작전' 등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애국주의를 강요한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받기도 한 영화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 같은 성공 신화에 관심을 뒀다. 당선인 시절 아테네 올림픽 여자핸드볼 대표팀 실화를 다룬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관람했고, 재임 때는 다큐멘터리 '워낭소리'를 본 뒤 주인공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9명의 자녀를 공부시킨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영화를 즐겼다. 특정 성향을 보이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섭렵했다. 최고 권력자를 풍자하는 '왕의 남자'부터 '괴물', '밀양', '화려한 휴가'까지 다양하다. 이혜리 기자



'케이팝 국가대표'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은 1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트위터서 열띤 홍보...국민으로서 평창 알리는 '방탄'

홍보대사 아닌 메도 스스로 사진·글 올려
기네스 등재 트위터...세계 각국 리트윗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1~2일에 한 번 꼴로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캐릭터 상품과 함께 찍은 인증샷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PyeongChang 2018)"이라는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방탄소년단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직접 관계가 없다.

다만 방탄소년단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후원사인 롯데면세점 광고 모델이라 일

정 부분 홍보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공식 SNS 등을 활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트위터는 한국 계정

으로 처음으로 팔로워수 1000만명을 넘어

었고, 2017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계정으로 '2018 기네스'에도 등재됐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SNS를 활용해 직접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방탄소년단이 올린 올림픽 관련 사진은 100만 건 이상 리트윗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팬들은 '좋아요'를 뜻하는 '하트' 표시를 누르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13~1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앞두고 있다. 이정은 기자 annjoy@donga.com

핫한 황정민·조정석, 연극 무대로 간 까닭

각각 '리차드3세' '아마테우스' 출연
새로운 연기 갈증·초심 회복 목적도

배우 황정민에 이어 조정석도 연극 무대로 향한다.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는 데다 특히 영화 출연 제안도 많지만 이들의 선택은 연극이다.

황정민은 2월6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시작하는 셰익스피어의 고전 '리차드3세'를 통해 10년만에 연극 무대에 다시 선다. 2008년 '웃음의 대학'에 참여한 이후 가끔 뮤지컬에 참여할 뿐 1년에 한두 편씩 영화를 내놓는 왕성한 활동을 벌인 그가 연극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조정석도 마찬가지다. 2월27일 시작해 4월 29일까지 광림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마테우스'로 관객을 찾는다. 현재 방송 중인 MBC 드라마 '투깝스'가 16일 종영하면 곧바로 연극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황정민과 조정석은 영화계에서 단연 '핫'한 배우로 통한다. 시나리오를 가장 많이 받는 배우로도 꼽히는 이들이 매력적인 제안을 뒤로하고 연극으로 향하는 데는 새로운 연기를 향한 갈증과 더불어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의 마음

과 각오를 되새킨다는 결심도 작용했다.

조정석은 '아마테우스' 출연을 알리면서 "어릴 때 본 영화 '아마테우스'를 잊지 못했다"며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정석은 '투깝스' 출연 도중에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의 시나리오 여러 편을 받았다. 제작진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지만 일단 연극부터 소화한 뒤 다음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황정민 역시 10년만에 연극에 나선 이유를 두고 "연기를 처음 할 때 선배들이 하는 셰익스피어의 고전극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며 "지금 예술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공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배우가 택한 연극은 그 자체로 단단한 팬층을 가진 이야기다. '리차드3세'는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가장 매력적인 악인이 주인공. 15세기 영국 요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인 리차드3세가 벌이는 끝없는 탐욕과 욕망, 파국을 그린다.

'아마테우스'는 천재 모차르트와 그에게 콤플렉스를 느끼는 살리에르의 이야기다. 조정석은 모차르트 역을 맡는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윤종신의 '기억해줘', 제2의 '렛 잇 고' 될까

11일 개봉 애니메이션 '코코' 주제곡 불러

11일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코코'가 심상치 않은 흥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수 윤종신이 부른 엔딩곡 '기억해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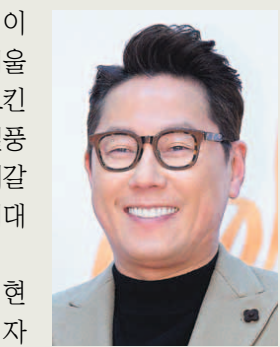
'코코'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소년 미구엘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겪는 모험과 꿈을 그린 이야기. 음악을 꿈꾸는 소년의 이야기로, 그만큼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 가운데 주제곡 '리멤버 미'는 '겨울왕국'의 명곡 '렛 잇 고'를 작곡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로버트 로페즈·크리스틴 앤더슨 부부의 작품. 윤종신은 이를 우리말로 번안해 부른 '기억해줘'를 선보인다. 오랜 시간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의 사랑을 얻어온 윤종신은 '기억해줘'를 통해 또 다른 감성을 전하며 벌써 관객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종신은 최근 '코코' 시사회장에서 '기억해줘'를 라이브로 선보여 관객의 박수와 환

호를 받았다. 이에 2014년 '겨울왕국'이 일으킨 '렛 잇 고' 열풍을 그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기대감은 현재 '코코'가 자아내고 있는 흥행 조짐의 분위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코코'는 10일 오후 2시30분 현재 26%(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로 '1987' '신과함께:죄와 벌'을 제치고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9일 제75회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영화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이에 따라 영화 자체의 흥행과 함께 윤종신이 부른 '기억해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종신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